

연번	질의 & 답변
1	Q. 이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A. 노후 소방용품으로 인한 화재 시 작동 불능 사고를 예방하고, 자체점검을 통해 미리 위험 요소를 발견하여 합리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속이나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제도입니다.
2	Q. '소방용품 내용연수 권장기준'이란 무엇인가요? A. 소방용품은 영구히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정상처럼 보여도 내부 부품 노후, 감지 민감도 저하 등으로 실제 화재 시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연수 권장기준은 **강제 기준이 아니라 안전 성능을 고려한 '권고 기준'이며, 자체 점검을 통해 성능 상태를 함께 판단하여 교체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	Q. 내용연수가 지나면 무조건 교체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권장내용연수 초과만으로 즉시 교체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체점검 결과 성능 저하 우려가 있거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체를 권고드리고 있으며, 단계적 교체 계획 수립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방용품이 불량이거나 사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4	Q. 내용연수 권장기준 초과로 바꾸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A.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처벌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일부인 소방용품은 설치·유지·관리는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있고, 설치·유지·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조치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Q. 한 번에 전부 교체하기엔 비용 부담이 큼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연차별 교체 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 결과서 또는 소방계획서에 교체 계획을 명시하시면, 차기 점검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6	Q. 교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용품을 관리하여야 하고, 소방용품에 대하여 점검 및 정비계획을 소방계획서에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소방계획서 작성 등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Q. 기존 법정 기준과 내용연수 기준이 충돌하지 않나요? A. 충돌하지 않습니다. 법정 기준은 최소 유지 기준, 권장내용연수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완 기준입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노후로 인한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	Q. 이번 종합대책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 이번 운영 결과(교체율, 민원 유형, 비용 부담 등)를 분석하여 기준 보완 및 제도 개선 후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은 향후 제도 설계에 적극 반영됩니다.
9	Q.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책임이 커지나요? A. 권장내용연수는 참고 기준이지만, 자체점검에서 교체 권고를 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화재 원인 조사 시 관리 책임 여부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당장 바꾸라는 명령이 아니라, 화재 전에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교체하시도록 돕는 안전 기준입니다."	